잘 차린 상에 숟가락 놓기

(로마서 1장 1절~15절)

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5.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6.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잘 차린 상에 숟가락 놓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1) 2005년 청룡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받는 자리에서 행했던 배우 황정민씨의 수상 소감이 아직까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수상 소감은 이렇습니다. “우선 매번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고 표현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여명 정도 되는 스텝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 그럼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포트는 저한테 혼자 다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제가 한 거는 이 여자 보면(트로피) 아마 발가락 몇 개만 띠어 가면 제거 같아요. 스텝들한테 그리고 감독님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 그리고 항상 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를 설레게 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준 전도연씨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도연아 너랑 같이 연기하게 된 건 나한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 고마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들과 사랑하는 동생과 조카와 지금 지방에서 열심히 공연하고 있는 황정민의 운명인 집사람한테 바치겠습니다.”

감동이 있지요? 소감 속에 담긴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아주 독특하고 구체적으로 표현 되어 있습니다. 일개 배우 나부랭이가 이렇다 하게 한 것이라고는 별거 없다는 겁니다. 그저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려놓고 맛있게 먹기만 했을 뿐인데 모든 영광이 자기한테만 돌아 왔다는 것이지요. 잘 차려진 밥상에 자기 숟가락 올려놓을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맛있게 먹었다고 상까지 주니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2)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공감대 속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은 자가 경험하는 구원이란 어떤 내용인가를 밝혀주는 교리서라고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의 사역을 잘 알아듣게 해석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이 성도들을 향해 갖는 의미(교리, doctrine)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또한 그 것들을 어떻게 현실 생활에 적용할 것인가를 교훈(교훈,teaching)하는 서신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말도 아닙니다.

로마서의 딱딱해 보이는 그리고 다분히 난해하게 여겨지는 말씀들이 실제로는 사도 바울의 주체 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의 마음 위에서 기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다 교훈이다 하는 단어 보다는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이라는 수상 소감이 우리로 하여금 로마서가 지니고 있는 본래의 정서에 훨씬 더 가까이 이끌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로마서는 사도바울이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은총으로 인해 갖게 되는 그 감사와 감격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면서 라야 바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사도바울의 마음을 오늘 읽은 로마서의 서문에서부터 우리는 아주 진하게 접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서문의 내용을 사도바울의 마음속의 감격에 공감하면서 다시 말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 한 것도 없이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어 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려진 상에 앉아 맛있게 먹었을 뿐인데, 맛있게 먹었다고 두 가지 선물이 주어지더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은혜와 열매입니다. 맛있게 먹고 은혜와 열매라는 상까지 받고나니 이 감격과 감사를 도저히 주체 할 길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사도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찾아봤더니 대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꼭 잘 차려진 밥상에서 자기 자신같이 맛있게 먹고 상까지 받는 일을 경험하도록 해주고 싶은 생각이 났다는 말입니다. 이 복음을 깊이 전하고 싶어 정말 사도 바울 자신의 마음이 뜨겁게 달아올랐다는 겁니다. 로마 교인들에게도 그저 맛있게 먹고 상까지 받는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어서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서문의 내용입니다.

3)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잘 차려진 상이란 뭘 말하는 것입니까? 2절에서 4절 까지 기록된 내용이지요. 즉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뭘 대단한 것을 하라는 요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맛있게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인데

그 죽음과 부활을 내 것으로 만들라는 것이지요. 내가 십자가에서 직접 채찍에 맞고 못 박히는 지독한 고통과 수고를 전혀 하지 않았고, 내가 무덤에 묻힌 것도 전혀 아니며, 내가 부활한 것도 아닌데, 그냥 다른 사람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어놓고 앉아서 먹기만 하듯이, 내 죽음으로 내 부활로 먹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요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먹고 났더니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상이 주어지더란 말이지요. 그것도 두 개씩이나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5절에서 말씀 하시는 은혜와 사도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선물은 은혜이고 두 번째가 사도로 부르심인데 이 사도로 부르심은 바울자신의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상을 일반적으로 바꾸어 말하면 사명이 되고요. 이것이 다시금 13절에서는 열매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상은 은혜와 열매입니다.

4) 그러면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맛있게 먹어 내 것으로 삼을 때 주어지는 이 두 가지 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 은혜라는 상을 살펴봅니다. 은혜란 그저 막연한 구원의 확신이나 세상적인 형통과 그에 따른 심리적인 평강 등으로 대체 될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 몸이 이 땅에 있어 눈과 귀로 이런 저런 땅위의 상황들을 접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내 마음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가장 우선적인 현실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내 마음에 가장 먼저 와서 닿는 현실이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시장도 학교도 병원도 아니고 천국이라니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 어디서든 언제든 몸으로 만나는 그 모든 상황들에 앞서 이미 천국에 닿아 있는 마음 상태로 세상의 상황들을 만나니 뭘 만나도 감사 기쁨 감격이지요. 이것이 은혜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상은 사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명이란 본래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것이지요. 내 뜻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소원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첫 번째 선물인 은혜 안에서 마음이 하늘에 닿아 있는 상태로 천국의 하나님과 주님을 만끽하고 있는데 이 땅위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은혜 받은 후 산다는 것은 삶의 내용 전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사명 그 자체일 수 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사명은 결코 내 힘으로 이루어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 마음이 죽고 부활하면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위를 향해 땅에서 떠나게 되지요. 그 결과 내 마음이 하늘에 닿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접촉을 통해 거꾸로 하늘의 기운과 뜻이 내 마음을 통해 아래로 흘러 내려와 몸이 있는 땅에 닿게 됩니다. 그것이 삶에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이

바울 자신을 통해 흘러 내려와 땅에 닿을 때 그것이 바로 사명을 이루는 것이고 또한 11절에서는 “신령한 은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늘의 기운과 뜻이 로마 교인들을 통해 흘러 내려와 땅에 닿게 될 것을 바라면서 바울은 바로 13절에서 “열매”라고 한 것 이예요.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명, 신령한 은사, 열매 이 모두 다 같은 맥락에 있는 말들이지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신령한 은사도 하늘에서 내려와 바울을 통해 땅에 닿는 하늘의 기운과 뜻이고 로마 교인들에게서 맺게 되기를 바라는 열매도 마찬가지란 말씀입니다.

5) 그러면 14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말씀의 뜻은 복음으로 인한 이 두 가지 상은 이 땅위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라인도 야만인도 지혜자도 어리석은 자도 즉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인종이 사는 곳을 다 뒤지고 다녀 봐도 사도바울 자신에게 있는 것이 그들에겐 결코 없다는 말씀이고, 자신에게만 있는 그것이 너무너무 좋고 좋아서 도저히 누구에게든 그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차별 없이 알려주지 않고는 못 배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좋고 좋은,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어놓고 맛있게 먹었더니 마음이 하늘에 닿는 은혜와, 하늘이 땅에 닿는 열매라는 상까지 받으며 사는 삶! 그 삶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도 없고 동사무소 말단 공무원에게도 없습니다. 재벌 총수에게도 노숙자에게도 없습니다. 박사님에게도 없고 초등학교 졸업자에게도 없습니다. 절세미인도 이 점에서는 소용없고 추녀라고 봐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없습니다. 모두에게 없습니다. 두 가지 상인 은혜도 열매도 없다는 것이지요. 자기들의 마음이 하늘에 닿는 은혜와 하나님 마음이 그들의 삶에서 땅에 딿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먹지 않는 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그에 따른 두 가지 상은 이 세상 안에서 전혀 생산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문익점이 원나라 밖으로 반출이 금지 된 목화씨를 붓뚜껍에 담아 고려로 반입했다는 이야기처럼 복음과 그에 따른 두 가지 상은 오직 천국에서 계획되고 만들어져 이 땅으로 수입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6) 사도바울은 로마서를 3차 전도여행(AD 53-57)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중 한 곳에서 본서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5차 예루살

렘 방문 직전에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방문지인 고린도에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 곳에서 겨울을 맞아 항해를 재개하는 이듬해 봄까지 3개월을 기다리는 동안(행20:3) 본서를 집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기록 시기는 AD57년 후반기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내며 쓰게 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사도바울의 편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잘 차려 놓으신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숟가락만 들고 와서 먹으라는 초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의 배부름은 내 수고와 노력으로 얻게 된 것을 먹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거듭 거듭 반복합니다. 그렇게 와서 먹을 때 은혜와 열매라는 두 가지 선물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사도행전에 이어 우리에게 주어진 로마서는 사도행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체질 개선의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다이어트를 위한 책이지요. 그래서 교리와 교훈을 얻게 되는 책이라기보다는 읽어 가는 동안에 계속 먹어야 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들고 앉아 잘 먹고 그리고 약속된 상 받고 그 감격과 감사에 젖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속이 타서 못 견디게 하는 책 그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의 서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도바울을 통하여 이천 년 전에 로마서를 쓰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제 이 로마서를 대할 때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들고 앉아서 맛있게 먹고, 사도바울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와 열매라는 두 가지 상을 받고 사도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